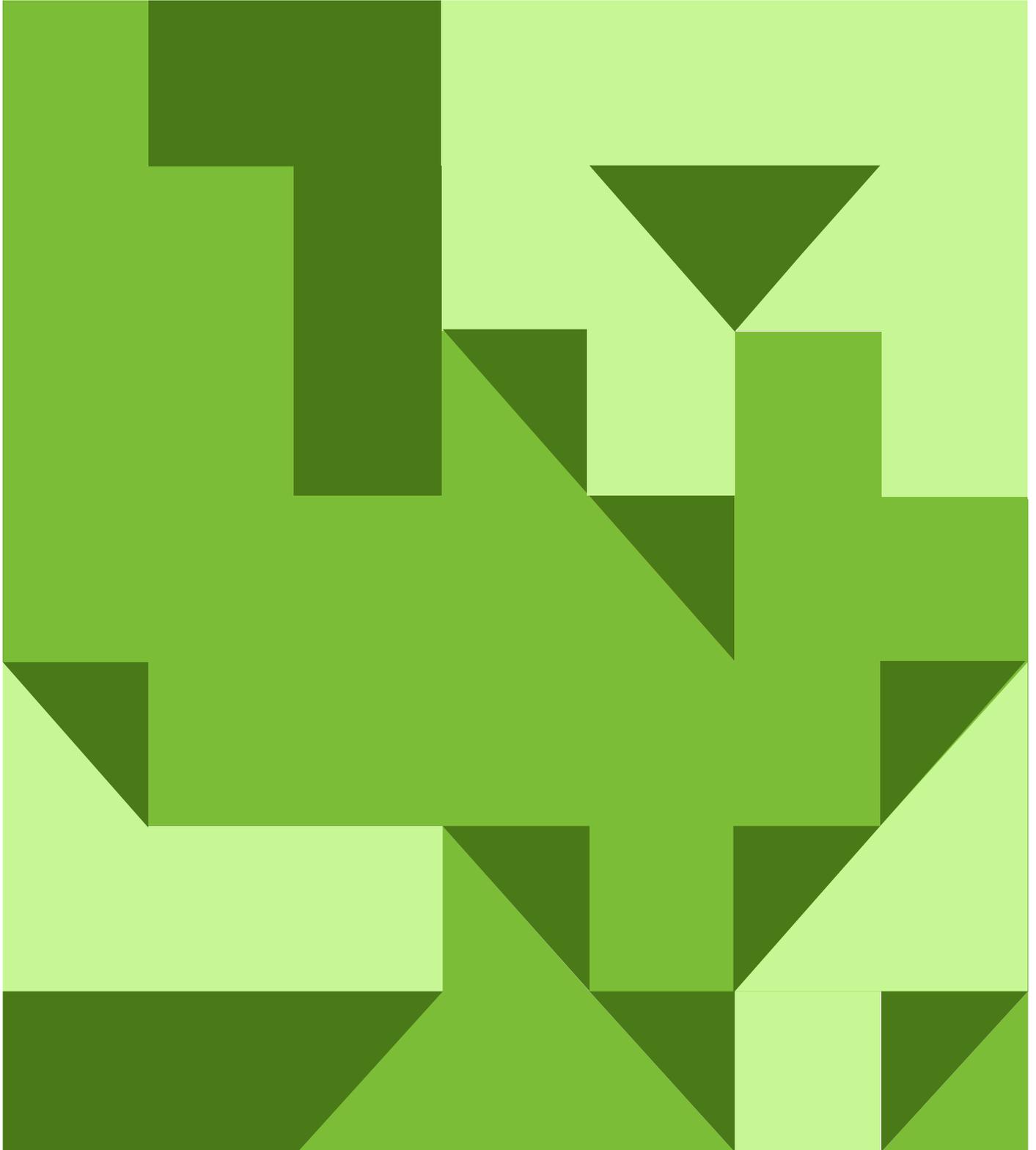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 3월호

*임팩트온의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는 매월 분야별 ESG 트렌드를 주제별로 정리해 제공하는 연중 기획 시리즈입니다.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3월호 | Monthly ESG Trend Report

임팩트온 홈페이지 | <http://www.impacton.net/>

조사 및 작성

- 1. ESG 정책 | 임팩트온 송준호 에디터
- 2. 에너지 & 산업 | 임팩트온 송선우 에디터
- 3. 전기사 산업 | 임팩트온 홍명표 에디터
- 4. ESG 투자 | 임팩트온 이재영 에디터
- 5. 기후테크 | 임팩트온 김환이 에디터
- 6. 이달의 핫이슈 | 임팩트온 박란희 편집장

편집 디자인 | 임팩트온 이승진 디자이너

1. ESG 정책

Key Takeaways

- ESG 의제의 통상장벽은 더욱 두터워지는 중이다. 3월에는 EU의 강제노동 관여 제품 금지 규정, 기업 지속가능성실사 지침(CSDDD), 핵심원자재법(CRMA)이 주요 통상규제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주요 정책들이 통과 됐지만, 안티ESG, 산업계의 반발 등의 정쟁으로 인해 초안과 비교해 많이 규제 수준이 많이 약화됐다. 미국의 기후공시법, 유럽연합의 넷제로산업법(NZIA)과 자연 복원법이 이런 흐름을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 기업들이 탄소중립 정책을 두고 분열하고 있다. 산업협회가 기후 관련 정책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 탄소중립 전환 속도가 빠른 기업들은 협회 탈퇴 카드로 협회의 입장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3월에는 테슬라와 유니레버가 목소리를 크게 냈다.

ESG, 통상장벽 정책으로 형성 중...EU강제노동 금지법에 주목

ESG 관련 의제는 3월에도 굵직한 통상 장벽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통상 규제는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산업에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한국과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들은 주요 견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런 통상장벽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3월에 주목해야 할 통상장벽 정책으로는 먼저, 지난달 5일(현지 시각) 통과된 유럽의 강제노동 관여 제품 금지 규정이 있다. 이 법은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과 같이 중국을 견제하는 강력한 통상 규제다.

유럽의 강제노동생산금지법은 미국 법보다는 규제 강도가 약하다. 미국은 강제 노동에 대한 ‘의혹’만으로도 조사를 시작할 수 있으나, EU는 규제 당국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공식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어렵다. 법이 지금 도입됐기에 미국이 2021년 금지법을 통과시킨 후 제재 사례를 축적해서 법을 구체화하고 강화했듯 유럽도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1. ESG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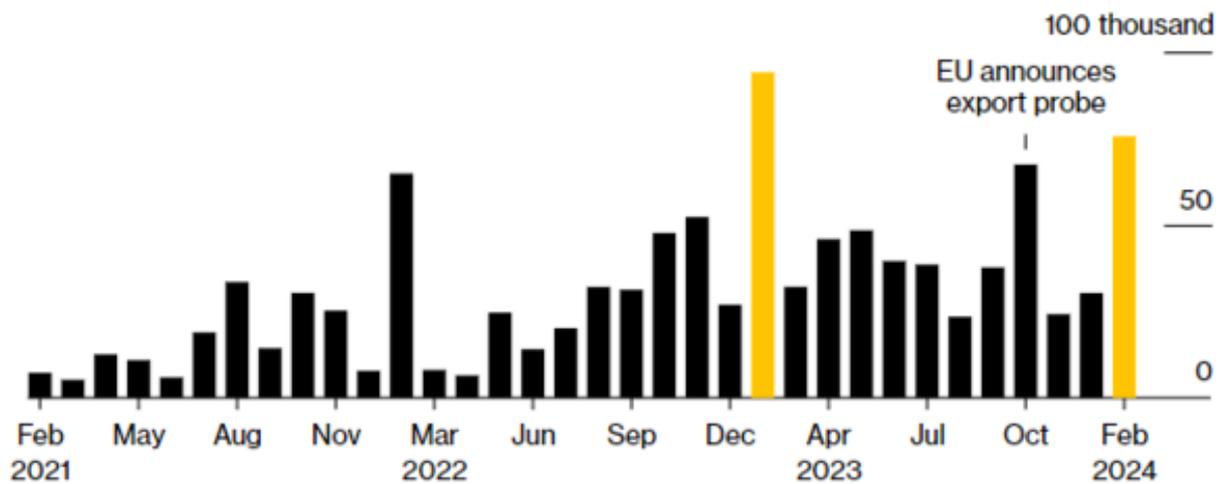
이 법은 [공급망 실사법](#)으로 잘 알려진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하 CSDDD)와 맞물려 우리 기업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CSDDD가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공급망을 실사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강제노동생산금지법이 통과되어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와 공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조치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미국 애리조나에서 아동 노동 착취 문제로 곤욕](#)을 치른 것처럼, 인권을 감시하는 눈과 제재가 강화되어 감을 의미한다.

이는 배터리, 풍력, 태양광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주요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확인된다.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을 지난달 18일(현지 시각) 최종 승인했다. 핵심 원자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으로 중국에서의 수입 비중이 매우 크므로, CRMA는 사실상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법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중국의 소재와 부품이 들어간 완제품에 대해서도 통상장벽을 높였듯, 유럽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Drop in China Electric Vehicle Exports to EU

Exports of pure EVs in January-February down nearly 20% on-year

■ Units exported, monthly



Source: China Customs; Bloomberg

Note: Refers to exports under customs code 87038000. January and February data combined due to lunar new year

중국의 대(對) EU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블룸버그

1. ESG 정책

[중국은 26일\(현지 시각\) IRA 전기차 보조금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왜곡한다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이는 그만큼 이런 통상장벽이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도 미국 및 유럽과 중국 시장 사이에서 포지션을 잘 잡아야 하는 시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런 흐름에 반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전 세종시 산업연구원에서 '공급망 및 기후 에너지 통상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최근 유럽연합(EU)의 관련 입법 동향과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했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회의에서 "EU의 입법 시행에 따라 발생할 기업의 부담과 기회 요인을 예의 주시하고, 업계 및 연구기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도 중대한 통상장벽이 되고 있다. EU는 유럽판 IRA라고 불리는 넷제로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이하 NZIA)의 [풍력발전패키지 정책](#)을 통해 심사 기준에 따라 외국 기업을 공공 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다. EU는 2026년부터 재생에너지 지원 관련 [공공 입찰의 심사 기준에 사이버 보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풍력터빈도 원격으로 관리되기에 장비 고장이 있으면 관리업체가 터빈의 제어권을 확보해 조작할 수 있다. 그런데 2023년 12월 중국 풍력업체 밉양 스마트에너지(Mingyang Smart Energy)가 세르비아의 풍력단지에서 150MW의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자, 보안 문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것이다.

사이버 보안으로 인한 통상 규제는 산업 영역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U가 이를 풍력 터빈에 적용하기 이전에 [미국은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전기차에 대해 사이버 보안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최근 "(미국 내에 있는) 중국의 커넥티드카는 베이징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즉각적으로 동시에 무력화될 수 있다. 이를 생각만 해도 무섭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커넥티드카가 상당한 양의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며 사생활 침해와 해외로의 정보 유출 문제도 지적했다.

정쟁으로 후퇴하는 ESG 정책들...통과는 됐으나 규제 약화

ESG 정책들은 정쟁과 산업계와의 기 싸움으로 인해 초안보다 많이 완화된 형태로 통과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후 정보 수집과 공개에 대한 규칙들이 영향을 크게 받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6일(현지 시각) [기후공시 의무화법](#)을 2년간의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최종안은 산업과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스코프 3(전체 가치사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제외하여 초안보다 상당히 완화됐다. 심지어 공화당 주도 주 10곳과 미국상공회의소는 기후공시법 통과에 대해 SEC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 ESG 정책

미국 재무부가 기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계획도 철회](#)됐다. 이 법안은 2022년 재무부가 주택 보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안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기후 관련 재정 리스크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기후 재난은 보험 산업 자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재무부의 자료 취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인력과 자원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에 크게 반발했다. 공화당은 보험업계와 함께 2023년 4월 연방 보험 규제당국인 FIO를 폐지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이에 재무부는 연방이 아닌 주 정부가 데이터 요청 권한을 갖고 주도하도록 정책을 완화했다.

국가적용대상 기업(제2조)		시행시기(제30조) (본 지침 발효일로부터)
역내		
평균 임직원 수가 1000명 초과, 전 세계 순 매출이 4억 5천만 유로 초과하는 회사 또는 그룹의 최종모회사	평균 임직원 수 5000명 초과, 전 세계 순 매출 15억 유로 초과	3년 (공시 의무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시행)
	평균 임직원 수 3000명 초과, 전 세계 순 매출 9억 유로 초과	4년 (공시 의무는 2029년 1월 1일 이후 시행)
역외		
EU 내 순매출이 4억 5천만 유로 초과하는 회사 또는 그룹의 최종모회사	EU 내 순매출이 15억 유로 초과	3년 (공시 의무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시행)
	EU 내 순매출이 9억 유로 초과	4년 (공시 의무는 2029년 1월 1일 이후 시행)
기타 모든 회사		
5년 (공시 의무는 2029년 1월 1일 이후 시행)		

CSDDD의 적용 범위와 시행시기/ ©법무법인(유)지평

1. ESG 정책

유럽에서는 지난 15일(현지 시각) 이사회를 통과했고 4월 본회의에서 최종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 CSDDD가 영향을 받았다. CSDDD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회원국의 반대로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3배로 줄었다](#).

지난 2월 유럽의회가 채택한 [자연 복원법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자연 복원법](#)은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2030년까지 육지 및 바다의 20%를 우선 복원하고 2050년까지 모든 생태계 분야로 복원 조치를 확대하려는 목적의 법이다. 문제는 이 법이 토지 이용과 관련한 산업 특히, 농업에 주는 영향이 크다 보니 유럽 농업계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크게 반발했다. 사태가 커지자 자연 복원법 표결은 무기한으로 연기된 상황이다.

[자동차의 배기가스 기준은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완화](#)됐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3월 20일(현지 시각) 차량 배기가스 기준 최종안을 발표했는데, 배출허용량 감축 목표를 56%에서 49%로 완화했다. 전기차 판매 비중도 2032년 67%에서 56%로 목표를 낮췄다. 유럽연합도 3월 14일(현지 시각) 유로7 환경 규제를 완화하여 발표했다. 이는 전기차 판매가 저조한 상황에서 내연기관차량을 주로 판매하는 기업들과 전미자동차노조(UAW)의 반대 의견을 수용한 결과로 확인된다.

산업계는 ESG 관련 정책의 완화로 시간을 벌었으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법이 일단 통과했고 국내외로 발효되는 정책들이 늘어나면서, 상호 간 영향을 주고 더 엄격한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스코프3 철회와 관련하여 “(미국 기업들은) 이에 대한 보고 의무는 없지만 (EU와 같은) 다른 관할권의 보고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결국 (스코프3) 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통과되는 각국의 정책들이 상호 영향을 주면서 발전하므로 기업들은 정책을 영역별로 묶어 비교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환 입장 차이로 기업 간 분열…테슬라, 유니레버 산업협회 탈퇴

경제 침체와 반ESG정서가 확산됨에 따라 정치권과 투자자들은 기업에 지속가능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기업 중에는 이런 움직임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사례들이 관측되고 있다.

탄소중립 산업으로의 빠른 전환이 기업 실적과 바로 이어지는 기업들에게서 특히 이런 갈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는 최근 호주 정부의 새로운 신차효율표준\(New Vehicle Efficiency Standard, 이하 NVES\)를 두고 호주자동차산업협회\(Federal Chamber of Automotive Industries, 이하 FCAI\)와 충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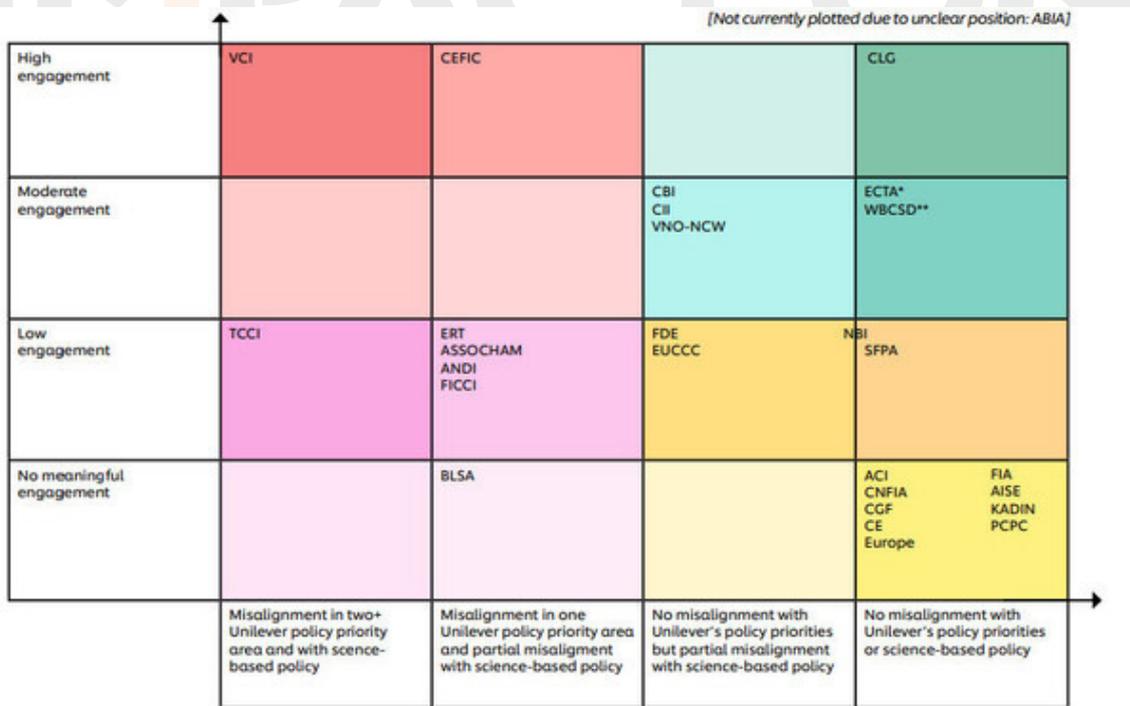
NVES는 탄소배출권 제도를 자동차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인 정책으로 2025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연비가 좋은 제조사는 여분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배출 상한선을 초과하는 제조사는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 하

1. ESG 정책

는 상황이다. FCAI는 NVES가 차량 가격을 최대 1만3000호주달러(약 1143만원) 인상하여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내용의 대중 캠페인을 통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에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는 FCAI 주장이 가짜 뉴스로 기후 노력을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응수했다. 테슬라는 지난달 7일(현지 시각) 협회를 탈퇴했으며,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인 **폴스타도 그 뒤를 이었다**. 폴스타 호주의 CEO 사만다 존슨은 “협회가 자동차 산업의 모든 목소리를 공정하게 대표한다고 약속할 때 폴스타는 협회로 복귀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니레버는 자사가 가입한 산업협회들을 조사한 결과 공개와 함께 넷제로를 방해하는 산업협회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여, 이런 흐름의 중심에 섰다. **유니레버는 3월 4일(현지 시각)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정책 관여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니레버는 기후 정책에 대해 자사와 입장이 다른 협회들을 대상으로 회원사로서 내부에서 입장 변화를 요구하거나 협상이 어려울 경우에 협회를 탈퇴하겠다는 강수를 두고 있다.



ACI: American Cleaning Institute
 ANDE: Asociación Nacional de Empresarios de Colombia
 ABIA: Associação Brasileira da Indústria de Alimentos
 ASSOCHAM: Associated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BLSA: Business Leadership South Africa
 CEPIC: 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
 CNFIA: China National Food Industry Association
 CBI: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CII: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CGF: Consumer Goods Forum
 CLG: Corporate Leaders Group
 CE: Cosmetics Europe
 VNO-NCW: Dutch Employers' Federation
 EUCCC: EU Chamber of Commerce in China
 ECTA: European Clean Trucking Alliance
 ERT: European Round Table for Industry
 FICCI: 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
 FDE: FoodDrinkEurope
 FIA: Food Industry Asia
 VCI: German 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KADIN: Indones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IS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oaps, Detergents and Maintenance Products
 NBI: National Business Initiative
 PCPC: Personal Care Products Council
 SFFA: Sustainable Food Policy Alliance
 TCCI: Tennessee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WBCSD: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유니레버는 기후 정책 관여 보고서에서 회사가 가입한 600개 이상의 산업협회 중 27곳을 선정해 기후 정책에 대한 로비와 입장, 탄소배출량 등을 지표로 상세히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유니레버

1. ESG 정책

Editor's Comment

미국과 유럽 연합은 ESG 정책을 통해 통상장벽을 높여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도 ESG 관련 정책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이름은 잃어도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기업 간 갈등은 정책 방향성에 따라 강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환 적응이 빠른 기업은 규제 강화와 IRA 같은 지원 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전략을 택하고 있으며, 전환에 불리한 기업은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맞붙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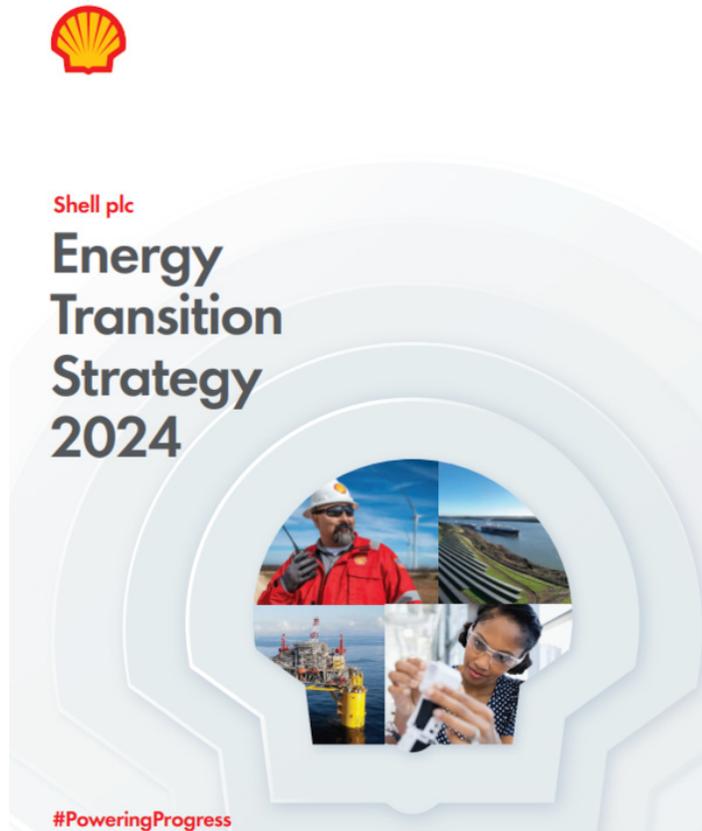
IMPACT ON

2. 에너지 & 산업

Key Takeaways

- 정유업계는 단기적인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일부 유예하고 원유 생산량을 늘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 CCUS 사업에 대한 계획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래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정책적 지원이 있을 경우 글로벌 탄소중립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반대 측은 높은 비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 인공지능(AI)이 각광받으면서, 이에 대한 기후변화영향도 조명받고 있다. AI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 에너지 사용 최적화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반면, AI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 허위정보 유포가 주요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화석연료업계, 탄소중립 단기 목표 조정하고 친환경·화석연료 투트랙 전략 수립



셸이 발표한 2024 에너지 전환 전략 표지/ Shell

2. 에너지 & 산업

지난 14일, 영국의 메이저 정유사인 셸(Shell)은 [2024 에너지 전환전략](#)을 발표했는데, 해당 전략에서는 기존의 탄소중립목표가 하향 수정됐다.

셸은 ‘에너지 전환의 변화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2035년까지 배출을 45% 감축하겠다는 중간 목표를 삭제했다. 또한 2030년 스코프3 저감 목표를 기존 20%에서 15~20%로 다소 하향했다. 셸의 스코프3 배출량은 기업 전체 배출량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영국의 화석연료기업 BP 역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변경한 적이 있다. BP는 2020년에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을 2019년에 비해 40%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35% 이상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2030년까지의 중간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30%로 수정했다.

해당 기업들이 탄소중립목표를 하향한 주요 이유는 이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한 원유 생산량 증가를 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글로벌 컨설팅 업체 베인 앤 컴퍼니는 [2024 천연자원 및 에너지 기업 임원 설문조사](#)를 발간해 에너지 전환을 바라보는 글로벌 화석연료업계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이어지는 화석연료업계의 탄소중립 목표 하향 움직임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유업계 임원의 약 60%는 글로벌 탄소중립이 연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천연자원업계에 서 가장 높은 수치다. 약 70%의 임원들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저조한 투자수익률(ROI)을 에너지 전환의 가장 큰 장벽으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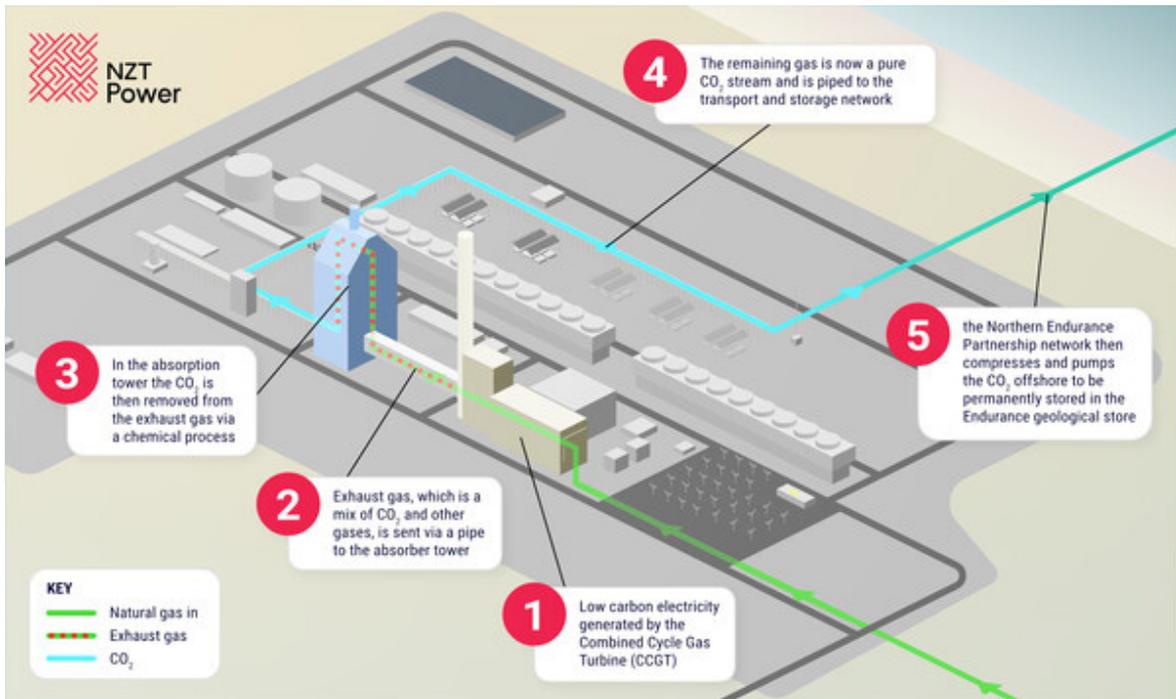
특히, 정유업계 임원들이 ROI에 대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정유업계의 주주들이 배당 금액과 주가 방어에 예민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월, 행동주의 투자기관 블루벨 캐피탈은 BP의 주가하락을 지적하며, [청정에너지 투자를 60% 감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유업계 임원의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지역 간의 격차가 꽤 컸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신사업을 주요 성장 및 수익 모델로 삼겠다”한 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중동(61%) ▲아시아태평양(55%) ▲라틴 아메리카 (51%) ▲유럽 (30%) ▲북미 (29%) 순이었다.

2. 에너지 & 산업

종합해보자면 많은 정유업체들은 단기적인 수익을 보전하고자 원유생산량을 늘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소, 바이오 연료, 재생에너지 등의 사업에도 투자를 이어가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CCUS사업에 대한 파트너십 급증… 비용과 경제성에 대해선 의견 갈려



영국 BP와 에퀴노르(Equinor)의 합작 투자사, 넷제로 티사이드 파워(NZT Power)의 40억파운드(약 6조7950억원)규모 CCS사업 로드맵/NZT Power

글로벌 정유사의 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 (CCUS)사업에 대한 파트너십 소식이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 3월 8일, 엑손모빌(ExxonMobil)과 셸(Shell)은 싱가포르 정부와 협력해 탄소 포집 및 저장(CCS)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S-Hub’ 컨소시엄을 구축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매년 250만 톤의 탄소를 포집해 이를 지하 또는 해저에 저장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다.

또한 지난 3월 21일, 영국 BP와 에퀴노르(Equinor)의 합작 투자사인 넷제로 티사이드 파워(NZT Power)가 40억파운드(약 6조7950억원) 규모의 CCU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8건의 계약을 체결했음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노키아(Nokia)의 계열사 알카텔 서브마린 네트워크스(Alcatel Submarine Networks), GE에서 분리된 GE 버노바(GE Vernova) 등이 포함된다.

2. 에너지 & 산업

지난 19일에는 세브론이 일본의 JX석유개발(JX Nippon Oil & Gas Exploration Corporation)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CCS사업의 가치사슬을 공동 개발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CCUS사업에 대한 계획이 우후죽순 발표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50년 CCUS의 포집량이 연간 75억톤에 달해야 하는데,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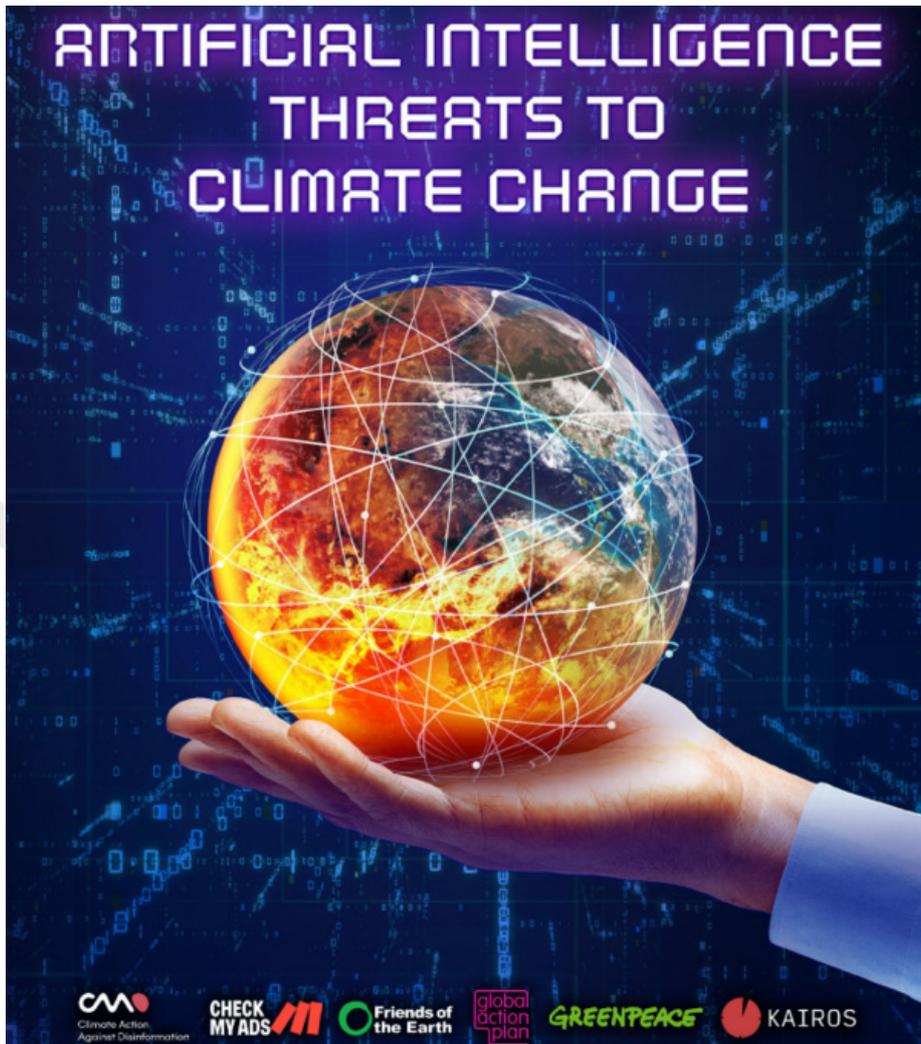
이에 대해 에너지 컨설팅 전문업체 [라이스타드 에너지\(Rystad Energy\)](#)의 창립자 제런드 라이스타드(Jarand Rystad)는 “CCUS를 통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약 5000개의 이산화탄소 주입 정(Injection well)이 필요한데, 이미 글로벌 화석연료업계는 연간 약 6만 개의 유정을 뚫고 있기 때문에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며 “2028년까지 수립된 글로벌 CCS 계획을 살펴봤을 때, 이는 글로벌 기후상승을 1.6도까지 제한하기에 충분한 숫자” 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S&P글로벌](#)은 탄소배출 감축이 어려운 고배출산업(철강, 시멘트, 비료 석유화학 등)의 글로벌 온실가스배출 비중이 30%에 달하며, 이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CCUS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지역에 따라 CCUS의 비용과 매력도가 다르고, 산업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목표의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지난 14일, 영국의 싱크탱크 카본 트래커(Carbon Tracker)는 [보고서](#)를 발간해 “영국의 CCUS계획이 과도하게 낙관적이며 비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카본 트래커는 영국의 CCUS 계획에 대한 문제점으로 ▲CCUS의 경제성을 위해서는 탄소가격 톤당 100파운드에 달해야 하나, 현재 가격은 31불에 불과 ▲2020년 이후, CCUS 설치 비용이 2배 가량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 ▲ CCUS의 다양한 옵션 중 비용이 높은 축에 속하는 바이오매스 전환을 주요 전략으로 채택 등을 꼽았다.

2. 에너지 & 산업

AI는 기후변화대응의 약인가? 독인가?... 전문가들의 갑론을박



인공지능의 기후변화 위협에 대해 다룬 환경단체의 보고서/Friends of the Earth

최근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해당 기술이 기후변화 대응에 끼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4일, 애플의 팀 쿡(Tim Cook) 최고경영자는 중국발전포럼에서 기후변화 전쟁 승리를 위한 핵심 무기가 AI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AI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원하는 모든 기업에게 엄청난 도구를 제공한다”며 “이는 탄소발자국을 계산하고, 회수가능한 원자재를 식별하며, 재활용 전략을 위한 행동을 추천한다”고 AI의 유용성을 조명했다.

실제, AI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일례로 [세계자연기금\(WWF\)의 '숲의 예측\(Foresight\) 프로그램'](#)은 위성 이미지를 활용해 도로 확장 공사 등 삼림 벌채의 조기 징후를 감지하고 지역 당국에

2. 에너지 & 산업

대응을 요청한다. 아시아 최대 열대우림 지역인 보르네오섬과 아프리카 가봉 공화국에서 파일럿 테스트 중인 숲의 예측은 80%의 정확도로 벌채 행위 발생 최대 6개월 전에 위험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캐나다의 스타트업 브레인박스 AI(Brainbox AI)는 클라우드 기반 AI 알고리즘을 통해 ▲건물 냉난방공조 (HVAC) 최적화 ▲복수사업장 에너지 관리시스템 ▲건물 온실가스 데이터 측정 및 감축 솔루션을 제공한다. AI는 실내온도, 날씨, 에너지 소모량, 전력요금 변화량, 전력 수요 등의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를 최소화한다.

반면, AI가 전력 수요에 대한 부담을 가중화하고, 기후 허위정보(Climata Disinformation)를 퍼뜨려 기후변화를 가속화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7일, 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ace),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는 [보고서](#)를 발간해 AI의 기후변화 위협을 조망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데이터 센터가 글로벌 온실가스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 가량인데 AI의 발전으로 인해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약 2배 증가하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배출이 무려 80%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2024 세계경제포럼은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AI가 생성한 허위정보’를 꼽은 바 있는데,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허위정보 위협을 굉장히 심각하게 봤다. 실제 보고서는 AI 모델을 통해 풍력에너지가 텍사스의 정전이나 뉴저지 연안의 고래 떼죽음을 초래했다는 허위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ditor's Comment

AI, 탄소포집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술이 득과 실에 대한 논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기업의 경우, 지리적 여건과 밸류체인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기술을 적용해야할 지 신중히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 단기적 탄소중립목표를 조정하고 있으나, 친환경 부문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볼 수 있다. 단기적 재무가치와 장기적 친환경 비즈니스 도모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경영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전기차 산업

Key Takeaways

- 중국 EV업체가 가격 인하를 시작하자, 다른 나라의 EV업체들도 배터리 가격과 차량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섰으며, 골드만 삭스도 올해 EV배터리 가격이 크게 낮아질 것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다.
- 세계 1위를 차지한 중국 EV에 대해 전 세계 EV업체들의 합종연횡이 시작됐다. 현대차도 대형 EV트럭시장 관련해서 이베코와 손잡았다. 대형 EV 트럭시장은 아직 미개척 EV시장이므로 선점하려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베트남 EV 빈패스트가 현대차를 따라잡기 위해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에 매장을 오픈하고, 충전소 사업까지 시작하는 등 맹렬하게 현대차를 추격하고 있다.

EV시장 둔화, 경쟁은 더욱 치열 중국 EV 견제 움직임 여러 곳 감지



BYD와 메르세데스 벤츠의 합작사 덴자(Denza)가 4월초 공개한 고급 EV 세단의 뒷모습./덴자

3. 전기차 산업

올해 초부터 EV 시장이 둔화되자 [중국의 BYD와 CATL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올해 안으로 EV 배터리 값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때마침 [골드만 삭스는 올해 EV배터리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다른 EV업체들도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격 할인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테슬라도 저렴한 보급형 EV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흘렸다. 로이터는 최근 테슬라가 저가 EV의 출시를 취소했다는 보도를 했지만, 곧 테슬라는 반박했다.

애플은 EV사업을 접은 반면, 스마트폰과 소형 가전으로 친숙한 중국의 샤오미가 오히려 EV시장에 뛰어들었다. EV 시장의 성장은 둔화되는데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서 이윤은 줄어드는 본격적인 '치킨 게임'이 시작되고 있다.



BYD, NISSAN, TOYOTA, FISKER 로고./구글

먼저, 중국 EV의 대표주자인 BYD가 테슬라를 누르고 EV 판매량 세계 1위를 달성하자 여기저기서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먼저, 서방 국가의 EV제조사와 배터리 기업들이 합종연횡을 하기 시작했다.

국내에는 아직 정식 수입되지 않았지만, 덴마크 디자이너가 설립한 [미국 자동차 제조사 피스커\(Fisker\)가 일본의 닛산과 함께 EV 픽업트럭에 협력](#)할 지도 모른다는 클린테크니카의 보도가 나왔다. 피스커는 현재 자사 EV가격을 대폭 낮춘다는 보도가 나왔다. 닛산을 비롯한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는 오래 전부터 미국 픽업트럭 시장에 제품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역사가 짧은 피스커와 제휴해서 닛산의 픽업트럭 노하우와 피스커의 EV노하우를 결합, EV픽업트럭 시장에 뛰어드려는 것으로 보인다.

3. 전기차 산업

로이터에 의하면, 닛산에게는 EV 관련 3월 희소식이 있었다. 테슬라가 세계 1위 EV가 되기 전에 세계 EV시장 판매 1위를 했던 [닛산의 EV 리프\(Leaf\)](#)가 미국 시장에서 3750달러(약 505만원)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국 EV업계로서는 반발할 만한 일이었다. 다만, 닛산 리프가 예전만큼 잘 판매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하이브리드의 강자 도요타도 EV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전기차 시대에 대한 준비도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 먼저 [EV배터리 생산을 증대한다는 소식](#)이 EV리포트에서 나왔다. 아직은 도요타가 하이브리드를 전략적으로 밀고 있지만 EV시장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전망됐다.

영국의 지속가능성 미디어 환경리더의 보도에 의하면, [도요타는 에너지허브\(EnergyHub\)와 EV충전과 전력망 지원을 위해서 협력](#)한다. 에너지허브는 북미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분산형 에너지 자원 관리 회사다. 이번 협력으로 도요타 또는 렉서스 소유자는 에너지허브의 플랫폼에서 EV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충전할 수 있게 됐다.

도요타는 한 술 더 떠서 아예 EV배터리를 전담할 회사를 도요타에 통합시켜 키울 태세다. 예전에 하이브리드 차량 배터리에 중점을 두었던 PEVE(Primearth EV Energy Co., Ltd.)는 Toyota Battery Co., Ltd.로 사명을 바꿔서 도요타에 완전히 통합될 예정이다.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치는 도요타의 EV배터리 생산 능력을 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요타의 강력한 경쟁 상대 중 하나인 혼다는 닛산과 EV 개발과 생산에 대해서 다시 협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EV시장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투자 부담을 줄이면서 경쟁력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일본의 경제지 닛케이는 일본이 EU와 차세대 EV배터리를 공동 개발키로 했다는 소식을 특보로 전했다. 소부장에 강한 일본이 EU와 반도체 부분에서도 협력한다고 한다.

한편, EV시장의 합종연횡에서 현대차도 가담했다. 클린테크니카의 보도에 의하면, 현대차는 이탈리아의 트럭 제조사 이베코(Iveco)와 제휴해서 대형 EV트럭 시장을 놓고 파트너십을 확대키로 했다.

최근 EV시장은 대형 트럭으로 확대하는 흐름이 있다. 미국과 유럽의 EV 제조사가 이제는 대형 EV트럭 시장을 선점하려고 경쟁하는 중이다. 지속가능미디어 '환경리더'에 의하면, 트럭 운송 시장은 탈탄소화하는 데 비용이 1조 달러(약 1353조원) 가량 든다고 한다. EV업계 입장에선 미개척지나 다름없는 것이다.

3. 전기차 산업

한편, 현대차를 따라잡겠다는 포부를 천명한 베트남 EV 빈패스트의 질주가 가속화되고 있다. [아프리카](#)에 이어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에도 딜러 매장을 열고 동남아 시장과 아프리카 시장에서 현대차를 추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배터리 구독 프로그램이라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출발한 빈패스트는 해외 충전사업까지 손 대고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현대차를 추격할 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베트남EV 빈패스트, 글로벌한 판매망 구축에 나섰다 충전사업까지

한편,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베트남 등의 견제 움직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은 가격인하 전술로 밀어부치고 있다. 클린테크니카에 의하면, BYD는 새로운 가격 인하 전략으로 세계 자동차 판매 1위를 앞다투는 도요타와 폭스바겐을 압박하고 있다. EV 1위에서 이제는 자동차 세계 1위까지 차지하려는 기세다.

중국의 저렴한 EV의 미국 시장 침투를 저지하려는 분위기가 보이자, 미국에선 정치권이 나섰다. 미국은 중국 EV에 대해 관세뿐만 아니라, EV배터리 기술 및 저렴한 원자재 사용 등 다양한 혁신기술로 중국과 격차를 벌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도 WTO에 "미국이 EV에 주는 인센티브는 무역장벽"이라며 인센티브를 걸고 넘어졌다.

The logo for Coreshell, featuring a stylized 'C' symbol followed by the word 'Coreshell' in a bold, dark blue sans-serif font.

Ferroglobe

Coreshell, Ferroglobe PLC 로고/구글

EV전문 미디어 EV리포트에 의하면, 미국의 배터리 기술기업 [코어셸\(Coreshell\)](#)이 영국의 [페로글로브\(Ferroglobe PLC\)](#)와 손 잡고 흑연이나 실란에 기반한 배터리를 능가하는 금속 실리콘 배터리를 개발한다. 금속 실리콘은 흑연보다 최대 10배 이상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EV의 주행거리를 약 30% 늘리는 게임 체인저다.

3. 전기차 산업

페로글로브는 합금에 쓰이는 금속을 주로 공급하는 전문업체다. 금속실리콘 이외에도 망간 합금, 규소철, 칼슘 실리콘 등을 공급한다. 한편, 코어셀은 배터리의 수명 저하를 막고, 빠른 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나노물질 전극 코팅(nanomaterial electrode coating)이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이 기술로 EV배터리의 수명을 연장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끝으로 거대 화석연료 기업인 BP는 미국에 EV충전 허브를 론칭했고, 셸(Shell)도 EV충전 인프라를 강화하려고 소매시장을 혁신할 계획을 세웠다. 화석연료 공룡들도 EV인프라 시장을 잡기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에 치열하게 뛰어 들고 있다.

Editor's Comment

국내외 전기차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할인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중국 EV를 견제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합종연횡이 잦아진 상황이다. EV시장에서 피 튀기는 경쟁이 시작됐다.

EV배터리 제조사는 없지만 현대차를 따라잡겠다고 나선 베트남의 EV 빈패스트의 기세가 무섭다. 미국 시장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에도 매장을 내고 충전사업에까지 손을 대고 있다. 얼마나 현대차, 기아를 따라올 지 흥미롭다.

4. ESG 투자

Key Takeaways

- 3월에는 미국 증권위원회(SEC)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금융시장에서도 기후 회복 및 적응 관련 투자상품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기관투자자들의 지속가능성 목표 촉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UN 넷제로은행연합(NZBA, Net-Zero Banking Alliance)은 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기후 관련된 약속을 강화했다.
- 미국 대선을 앞두고 블랙록에 대한 공화당 지지 주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미시시피주는 블랙록이 ESG 투자 관련해서 투자자를 기만했다며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테네시주가 블랙록을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지 3개월 만이다.

SEC 기후 공시 의무화 발표... 기후 변화 회복 및 적응 관련 금융상품 확대될 것

3월 6일(현지시각) [SEC가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을 최종 채택](#)했다. 지난 2022년 3월 초안이 공개된 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이유로 여러 번 최종 확정이 연기되었다. 쟁점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범위 중 공급망 가치사슬 배출량인 스코프3(Scope3) 공시였다. 결론적으로 Scope3 공시는 제외, 전체적인 요건도 초안보다 다소 완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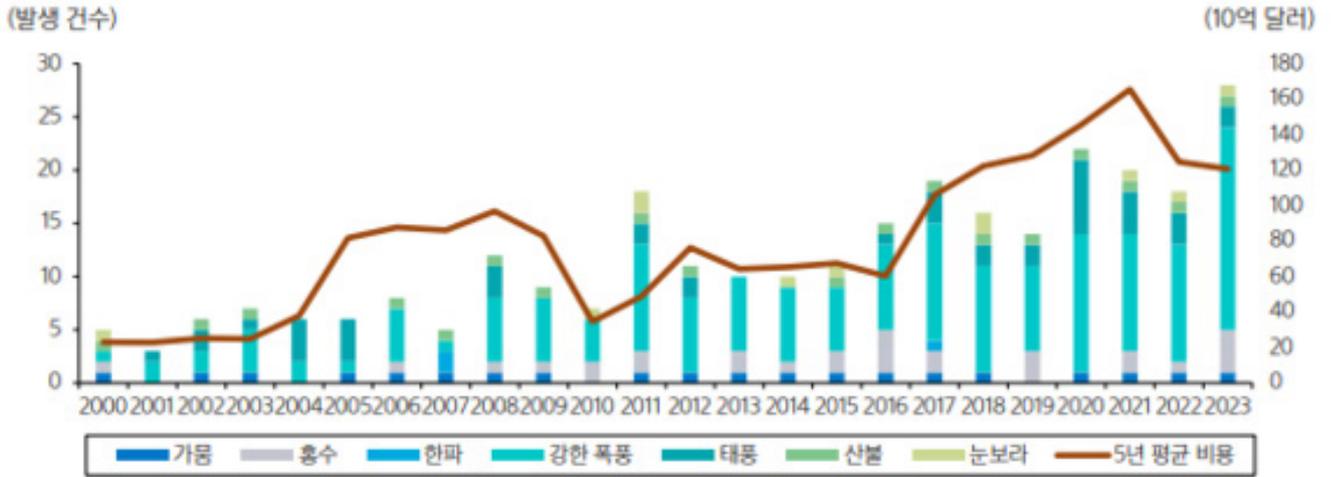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2027년부터 Scope1,2 배출량 공시가 의무화되고, 2030년부터는 제한적 검증 의무 적용, 2034년부터는 대기업 대상으로 재무제표 검증 수준의 합리적 검증이 요구된다.

SEC 기후 공시의 특징은 물리적 리스크에 따른 재무적 영향 공시를 강조한 것이다. [기후 재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SEC 규정에 따르면, [허리케인,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폭염 등과 같은 물리적 리스크](#)의 자본 비용, 지불, 요금 및 손실이 세전이익 또는 손실의 1% 이상인 경우 공시하도록 구체적인 수치도 명시했다.

실제로 보험사들을 필두로 [금융기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를 리스크 평가에 통합](#), 시장가격에도 반영하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등 극심한 이상기후로 피해가 빈번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보험료가 높다.

4. ESG 투자

미국 기후 재해 발생 건수와 피해 비용의 증가(2000~2023년)



참고: 기후 재해로 인한 피해 비용은 소비자 물가 지수(CPI) 조정된 금액
자료: NOAA, 삼성증권 정리

미국의 기후 재해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 삼성증권

SEC의 기후 공시가 최종 확정되면서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기후 회복 탄력성(Resilience) 및 적응(Adaptation)과 관련된 금융상품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기후 리스크에 많이 노출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지속가능연계채권(SLB)을 권고하거나 대출 상품의 성과평가지표(KPI)에 기후 적응 목표를 통합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 기회로는 기후변화 완화 외에도 적응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부상 중이다. 기후변화 적응 산업으로는 전력, 수도, 가스 등 유틸리티 산업, 인프라 네트워크, 자원 부문 등이 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지난 1월 인프라 분야 사모펀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GIP)를 약 125억달러(약 16조4950억원)에 인수했다. 부동산이 일반적이었던 대체투자 시장에서 인프라가 뜨고 있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2023년 12월 공적통화금융기구포럼(OMFIF)이 세계 50대 공적 연기금과 50대 국부펀드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가 향후 1~2년 동안 인프라에 대한 익스포저(투자자산 노출)를 늘릴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연금 및 펀드의 13%는 자산 클래스에서 부동산 비중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산을 인프라와 함께 가장 매력적인 자산 클래스라고 응답했던 2년 전과는 사뭇 달라진 결과다.

4. ESG 투자

기업에 지속가능성 밀어붙이는 기관투자자들... 선거 등 불확실성 대두에 포트폴리오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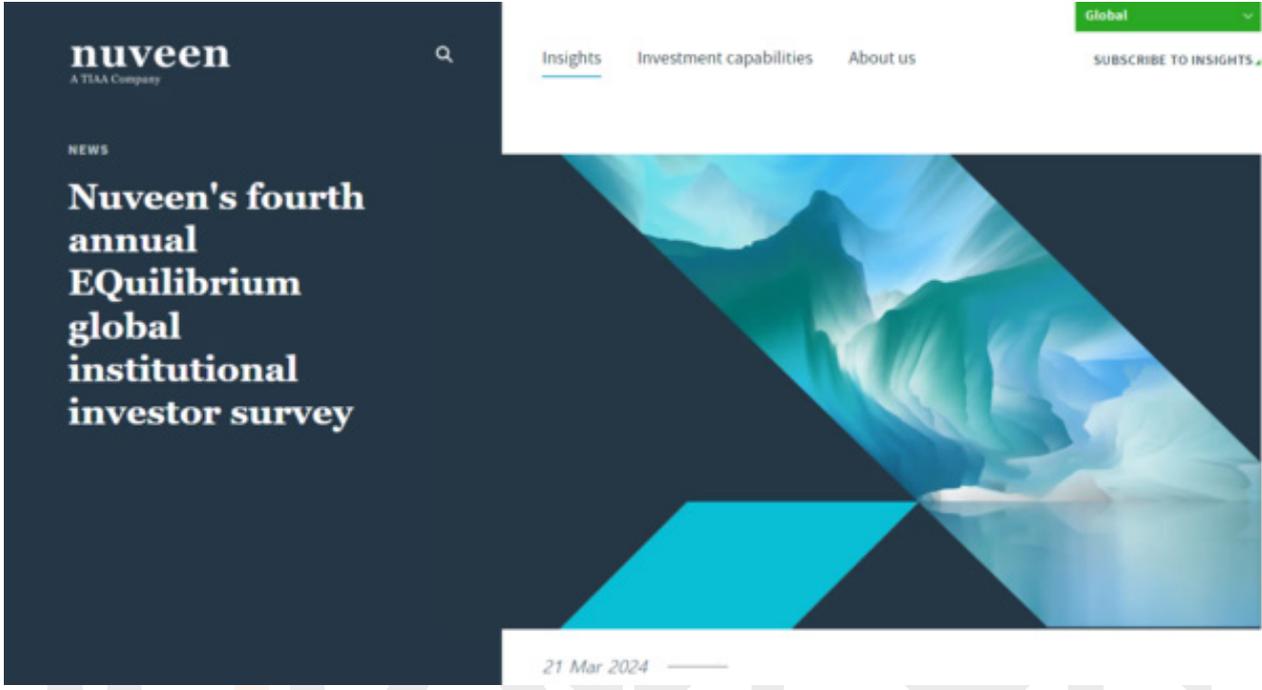
지난 3월 많은 기관투자자들은 지속가능성 목표 촉진 가속화에 나섰다. UN 산하 넷제로은행연합(Net-Zero Banking Alliance, 이하 NZBA)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 ESG 요건을 강화했다. 회원사는 은행 거래 및 채권 발행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해 고객과 협력할 것도 권장했다. [로이터](#)는 NZBA가 [회원사 이탈 방지](#)를 위해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지침 준수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1조6000억달러(약 2161조원)를 운용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생물다양성 이슈로 9420만달러(약 1282억 원) 규모의 투자 지분을 매각했다. 3월 1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이번 조치는 [노르웨이 기금 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문제의 기업 3곳이 오랑우탄 서식지에 위협을 주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유럽 최대 연기금 네덜란드 ABP 또한 ESG 투자 원칙을 강화해, 기후, 자연, 인권 및 기업 투명성과 관련된 심각한 논란이 있는 기업은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블룸버그](#)는 ABP가 투자대상 기업을 '재평가'하고 있다며, 평가가 완료되면 투자기업 총수가 절반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한 ABP는 2030년까지 기후 및 생물다양성 솔루션에 300억유로(약 43조원)를 투자할 것이라며, 이중 100억유로(약 14조원)는 네덜란드의 저렴한 주택, [지속가능한 에너지](#), 혁신 부문에 할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관투자자들은 다가오는 선거, 높은 금리, 지정학적 갈등 등 불확실한 거시경제 아래 투자 방식을 재구성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관리사 누빈\(Nuveen\)](#)은 3월 21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최근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사모펀드 투자, 에너지 전환 및 혁신, 인프라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4. ESG 투자



투자관리사 누빈이 기관투자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 누빈 웹사이트

응답자 중 65%가 리스크 헷지(Risk Hedge)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재편 중이라고 답했지만, 현금 보유량을 늘리겠다는 투자자는 37%로 작년 41% 대비 감소했다. 이는 관망보다는 신규 투자 발굴 의지를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는 민간 인프라 채권을 선호하는 반면, 기부금 및 재단 쪽은 사모투자, 즉 비공개 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것을 선호했다. 북미 공적연금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채무를 가진 대출상품(senior middle market loans)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대선 앞두고 공화당 반발 거세... 블랙록 수난시대

한편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서는 블랙록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지지 주인 [미시시피주가 블랙록에 즉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ESG 투자와 관련해서 블랙록이 '사기성 마케팅'을 했다는 주장이다.

미시시피주 국무장관실 증권부는 ESG 요소가 투자 수익률을 개선한다는 블랙록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블랙록은 운용 중인 모든 자산으로 환경 목표 촉진을 지향한다고 밝힌 만큼, 블랙록의 비(非) ESG 펀드 또한 ESG 요소와 무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시시피주의 이번 조치는 테네시주가 지난해 12월 블랙록이 ESG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3개월 만이다.

4. ESG 투자



미시시피주가 블랙록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 블랙록 웹사이트

3월 24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즈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레드 스테이트(red state)' 연기금들이 지난 2년 동안 블랙록으로부터 약 133억달러(약 18조원)의 자금을 회수했다고 보도했다.

블랙록은 미시시피주의 즉결 처분에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ditor's Comment

SEC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이가 최종 확정된 만큼, 국내 ESG 공시 기준도 Scope3는 제외, 공시항목에 중대성 기준을 적용하는 등 미국을 따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기관투자자들의 지속가능성 목표 가속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선거 등을 의식,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올해는 오는 11월 미 대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선거 리스크와 지정학적 이슈를 피해가면서도 새로운 수익 발굴에 나서고 있다. 기후 회복 및 대응, 에너지 전환, 인프라 등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조정이 엿보인다.

5. 기후테크

Key Takeaways

- 탄소제거(CDR)가 글로벌 기업들이 넷제로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래 탄소제거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특히 기술기반제거(TBR)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 마이크로소프트, 드렉스 등 글로벌 대기업들은 다양한 TBR 프로젝트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기업들의 TBR 기술에 대한 관심은 저렴한 기술 비용과 함께 탄소제거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 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미국 내 DAC 프로젝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글로벌 기업과 DAC 스타트업 간의 대규모 CDR 계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탄소제거, 글로벌 기업에 장기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



글로벌 컨설팅기관 맥킨지가 발간한 보고서

5. 기후테크

탄소제거(CDR)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기관 [맥킨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제거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기업 경영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일환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뿐 아니라 잔여 배출량까지 추가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스퍼드대학교가 주도한 [이산화탄소 제거 현황 연구보고서](#)는 “파리협정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2050년까지 연간 6~10기가톤의 탄소를 제거해야 하며, 2030년까지 연간 0.8~2.9기가톤의 탄소를 추가 제거해야 한다”며 “이는 현 추정치보다 3~10배 이상의 규모로 탄소 제거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향후 탄소제거시장 시장규모는 2050년까지 최소 3000억달러(약 405조원)에서 최대 1조2000억달러(약 1623조원), 투자금액도 6조달러(약 8115조원)에서 16조달러(약 2경1640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제거 시장에 투자자, 공급업체, 구매자, 거래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제거(CDR) 기술 중 특히 기술기반제거(TBR) 사업에 집중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기술기반제거 유형으로는 ▲바이오 숯 및 바이오 오일 ▲해양 알칼리성 강화 ▲풍화 강화 ▲탄소 포집 및 저장을 통한 바이오 에너지 ▲해양 직접 포집 ▲직접 공기 포집 및 저장 등이 있다.

탄소기반제거(TBR) 투자 늘어나

지난 달 글로벌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은 TBR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하거나 탄소제거 기반으로 탄소크레딧을 발행하는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달 바이오차(Biochar) 생산 및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스위스의 탄소 제거 스타트업 ‘더 넥스트 150(The Next 150)’과 바이오숯 탄소 크레딧 6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목재를 섭씨 300도 정도에서 태워 숯가루 형태로 만든 토양개량제를 말한다. 더 넥스트 150 자회사 GBS가 생산한 9만5000톤의 탄소 제거 바이오차 크레딧을 MS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GBS는 멕시코에 옥수수, 밀, 수수와 같은 작물의 농업폐기물을 지속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토양 개량제로 최대 2만3000명의 지역 농부에게 바이오차를 공급할 계획이다.

5. 기후테크

영국 발전소 운영사 [드랙스](#)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2곳을 탄소 포집 및 저장을 통한 바이오에너지(BECCS) 기술로 전환하기도 했다. BECCS는 탄소를 제거하고 재생 가능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대규모 기술로 손꼽히고 있다.

탄소제거 스타트업들은 민간 기업이나 정부 투자자로 부터 거대 자본을 유치하기도 했다. 미국 해양 탄소 제거 스타트업 [반유 카본](#)(Banyu Carbon)은 지난 2월 말 시드자금으로 650만달러(약 86억원)을 받았다. 탄소제거 투자펀드인 프론티어 펀드(Frontier Fund)도 반유 카본에 탄소 1톤당 1387달러(약 185만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해양탄소제거 스타트업 [이퀘이틱 프로세스](#)(Equatic Process)는 싱가포르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 이산화탄소 제거(OCDR) 시설을 건설해 2025년까지 가동할 예정이다. 이퀘이틱 프로세스는 전기분해로 바닷 속 이산화탄소를 안정적인 고체로 전환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국가 수자원 기관(PUB)으로부터 2000만 달러(약 270억5000만원)를 지원받았으며 매년 4000톤의 이산화탄소를 해양에서 제거하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퀘이틱 프로세스(Equatic Process)는 싱가포르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 이산화탄소 제거(OCDR) 시설을 건설한다/이퀘이틱

5. 기후테크

풍화작용도 탈탄소화의 필수 기술로 주목받기도 했다. 탄소를 함유한 암석을 가루로 만들어 이를 농토에 뿌리는 ‘풍화강화(Enhanced Weathering)’를 활용한 탄소제거 방법을 확산하기 위해 [EWA\(Enhanced Weathering Alliance\) 동맹](#)이 3월 말 결성되기도 했다. 농업을 통한 탄소제거를 추구하는 인플래닛(InPlanet), 강화된 풍화작용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온(Eion) 등 100개 이상의 탄소경영기업과 단체가 모여 동맹을 결성했다.

최근 한 두달 사이 글로벌 기업들이 TBR 기술에 주목한 이유는 저렴한 솔루션을 통한 기술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들을 주도로 대규모 거래가 이뤄지고 지속적인 수요와 투자가 있다면 TBR 비용은 2035년까지 30-6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술 직접 투자나 탄소제거크레딧 거래를 통해 ‘얼리 무버(early mover)’로서 경쟁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 정부지원으로 미국 내 최대 DAC 크레딧 구매 계약 이어져

투자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글로벌 기업들과 직접공기포집(DAC) 스타트업들 간 최대 규모의 탄소 제거(CDR) 크레딧 계약을 체결하는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다.



클라임웍스(Climeworks)가 미국 내 DAC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텍사스 오스틴에 본사를 설립한다/클라임웍스

지난 3월 말 덴마크 [레고 그룹](#)은 글로벌 DAC 선두주자인 클라임웍스(Climeworks)와 14억 달러의 CDR 크레딧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레고 그룹은 향후 10년 간 31만5000미터톤의 이산화탄소를 클라임웍스로부터 구매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5일 구글도 탄소 제거 크레딧 계약을 12개월 동안 최소 3500만 달러(약 466억원) 체결했다고 밝혔다.

5. 기후테크

미국 정유회사 옥시덴탈의 DAC 자회사인 [1포인트파이브](#)는 AT&T, TD 은행(TD Bank), 로크웰 오토메이션(Rockwell Automation), 트라피쿠라(Trafigura)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대규모 CDR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유사하게 DAC 스타트업 에어룸도 지난해 말 마이크로소프트와 최대 31만5000미터톤의 이산화탄소 제거를 구매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스위스국제항공과 루프트한자 그룹](#)은 지난 3월 초 감축이 어려운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임웍스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DAC 탄소제거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 탄소 제거량을 구매하기로 협력했다.

특히 미국 내 DAC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거래와 투자가 집중됐는데, 이는 탄소 제거 프로젝트에 대한 [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말 미국 정부는 탄소 제거(CDR) 프로젝트에 최대 1억달러(약 1338억 원) 지원 계획을 밝혔으며, 이 부문 중 하나로 DAC가 지원 사업 대상으로 포함됐다. 클라임웍스, 1포인트파이브, 에어룸이 운영할 예정인 대규모 DAC 시설도 미 에너지부의 DAC 허브 지원으로 2-3년 이내 가동될 예정이다. 클라임웍스는 지난 3월 DAC 최대 시설을 설립하는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설립해 DAC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할 계획임을 밝혔다.

DAC 기술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제기되는 일부 회의적인 시각에 반해 넷제로를 달성하고 탄소 감축 노력을 가속화하는 수단으로써 DAC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집중적으로 쏠렸다.

Editor's Comment

지난달 탄소제거(CDR) 일환으로 다양한 기술기반제거(TBR) 기술과 탄소직접감축(DAC)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기존에는 경제성이 없어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던, DAC 기술도 각종 기업과 정부의 보조금 및 투자에 힘입어 조금씩 규모화를 달성하고 있다.

클라임웍스가 미국 내 DAC 최대시설을 설립하는 것은, 결국 보조금 지원 혜택을 통해 시장 선점 효과를 하겠다는 의미다. DAC를 포함한 탄소 제거가 넷제로 기술의 치트키가 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6. 이달의 핫이슈

Key Takeaways

- 블랙록 래리핑크 CEO의 2024년 서한에는 ‘재정 시한폭탄’을 갖고 올 2가지 미래 핵심어젠다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고령화요, 하나는 (에너지) 인프라 이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가 2년 여만에 최종안이 발표되면서 법적 소송으로 시끌법적하지만, 결국 핵심은 ESG(기후) 공시가 기업의 환경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메이저 정유사인 셸은 BP에 이어 지난 3월 넷제로 중간 목표를 완화시키는 기후 전략을 발표했으며, CA 100+와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등의 넷제로 중간목표 점검 보고서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블랙록의 2024년 서한, 그 함의는?

매년 화제가 되었던 [블랙록 래리핑크 CEO의 연례서한](#)이 2024년 3월에 발표되었음에도, 국내 언론에서는 별로 다뤄지지 않았다. ‘ESG의 정치화로 인해, 안티 ESG가 득세하고, ESG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의 기사가 국내 몇몇 메이저 언론에 실려서인지, 올해 블랙록 서한에서는 ESG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엽적인 뉴스만 다뤄졌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블랙록 래리핑크는 매우 커다란 미래 핵심어젠다 2가지를 던졌는데, 바로 고령화와 인프라 문제다. 그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를 ‘재정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거대한 경제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ESG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기후 지향적인 투자를 강력히 옹호하고 있으며 그 핵심을 에너지 인프라라고 칭했다.

그는 “많은 나라에서 20년 안에 고령화의 분기점에 도달할 것이지만, 미국인 10명 중 4명은 적절한 노후자금은 커녕 400달러(약 54만원)의 비상저축도 갖고 있지 않다”고 적었다.

6. 이달의 핫이슈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가 주주들에게 연례서한을 보내 에너지 실용주의와 은퇴연령 상향을 논했다./ 블랙록

핑크는 블랙록의 자산 10조달러 중 절반 이상이 은퇴자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며, 몇 가지를 제안했다. ▲20개주에서 시작했듯 모든 근로자들, 심지어 공연 및 시간제 근로자들까지 포괄하는 퇴직제도 마련 ▲더 많은 고용주에게 매칭펀드와 같은 인센티브 제공을 장려하고, 401K(퇴직연금) 저축을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034년이면 (예전과 같은) 보장을 제공할 수 없는 사회보장시스템을 감안해, 퇴직연령을 높이는 것 등이다.

블랙록은 향후 다양한 파트너십과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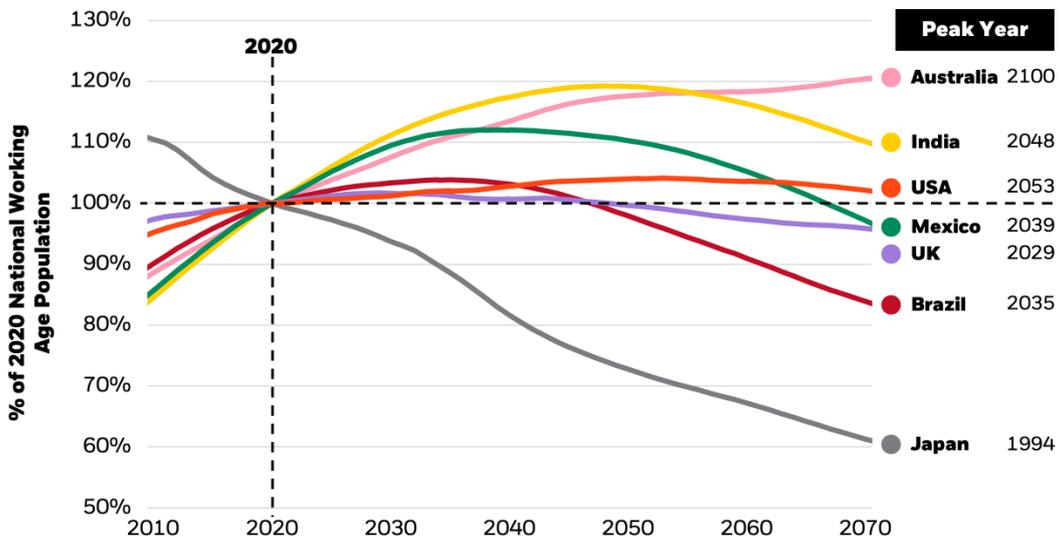


Chart: Percentage of 2020 National working age population

6. 이달의 핫이슈

그는 새로운 인프라의 블루프린트(청사진)를 3가지 꼽으며, 철강, 콘크리트, 민관협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프라의 미래는 민관협력이며,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문은 민간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 중 하나다. 그중 에너지 인프라에 가장 큰 수요가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도, “이것은 거대한 힘이며, 세계 GDP의 90%를 대표하는 국가들에 의해 주도되는 주요한 경제 흐름”이라고 밝혔다.

그는 ESG라는 용어를 직접 쓰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2020년부터 전환에 대해 (레터를) 쓰기 시작했는데, 미국에서는 논쟁거리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탈탄소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 블랙록의 고객 대부분은 넷제로가 최우선 투자대상”이라고 밝혔다.

대신 그는 이번 레터에서 ‘에너지 실용주의’라는 새로운 용어를 소개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즉 청정에너지 수요가 ‘에너지 안보’로 인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공급 방해로 인한 유럽의 인플레이션, 8000억유로에 달하는 에너지 요금 보조금 지출 등 일련의 사건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유럽산 (자체 생산) 에너지’라는 안보라는 개념으로까지 확대했다는 것이다.

블랙록은 이번 레터에서 특히 ‘12개의 전환(transition)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일부 소개했다. 태국, 필리핀의 태양광 건설, 아프리카 최대 풍력단지인 케냐 투르카나 호수의 풍력발전 투자, 안토라에너지(Antora Energy)의 열배터리인 ‘핫 락 배터리(hot rock battery)’와 같은 초기단계의 기술에도 투자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마지막으로 강조한 기술은 ‘탄소 포집’이었다. 블랙록의 인프라펀드 중 하나인 [스트라토스\(STRATOS\)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였다. 5억5000만달러를 투자한 이 프로젝트는 2025년 건설이 완료되면 세계 최대의 DAC 시설이 될 전망이다.

래리 핑크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주체는 텍사스의 정유사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라며 “언뜻 보기에 사람들은 석유 및 가스생산업체와 청정전력 및 기후테크기업으로 확연히 구분하지만, 사실 옥시덴탈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회사는 탈탄소화의 선구자이기도 하며, 이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블랙록은 전통적인 화석연료 기업의 매각을 지원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임을 밝혔다.

6. 이달의 핫이슈

SEC 기후공시, ESG 보고를 변화시킬까

한편, 지난 3월 6일(현지시각)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의 [기후공시 의무화 규칙 최종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은 전 세계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스코프3(Scope3) 배출량 보고가 제외된다는 소식이 이미 사전에 알려졌지만, 2026년부터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된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변화였다. 당장 조지아, 앨라배마 등 공화당 주도 10개주를 비롯, 미 상공회의소도 SEC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거나 예고하고 있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EC 기후공시는 일단 [법적 소송으로 인해 당분간 보류](#)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초안 제출 이후 이번 최종안이 통과되기까지 2년 동안 SEC가 검토한 의견서가 2만4000개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SEC는 이미 법적 소송을 예상했을 것이다. 시기가 다소 늦어지겠지만, 기후 공시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는 흐름을 바꿔놓기는 힘들다는 의미다.

컨설팅회사 EY의 지속가능성 글로벌 부회장인 에이미 브라치오는 [그린비즈](#)에 “기업들은 SEC와 유럽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 다양한 공시 데이터 요구사항과 프로세스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여러 국가의 요구사항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SEC의 기후 공시 도입이 정지됐다. / 픽사베이

6. 이달의 핫이슈

800페이지가 넘는 SEC의 새로운 규정은 소화해야 할 것이 매우 많은데, 그린비즈는 3가지 중요한 핵심 사항을 알아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우선,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를 사용하면, SEC 기후공시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이다. TCFD를 채택한 에코랩(Ecolab)의 에밀리오 테누타(Emilio Tenuta) 최고 지속가능성책임자(CSO)는 “스코프3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SEC 기후공시와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준인 GHG프로토콜은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2025년쯤 새로운 규칙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이러한 탄소회계 방법론은 점점 전 세계의 공통언어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둘째, 재무 및 ESG 공시가 연계된다는 점이다.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사업보고서 제출시기인 3월이 아니라 7~8월인 경우가 많다. 그린비즈는 “알파벳, 이베이, 인텔, 메타, 페이팔 등은 현재의 이러한 보고시점을 유지하기를 원했으며, 이들은 SEC에 ‘재무 회계연도가 끝난 후 적어도 180일이 지난 후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공시를 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EC는 특정한 환경 공시를 정기적인 분기보고서, 연간보고서 재무제표의 각주로 게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그린비즈는 밝혔다. 예를 들면, 악천후 또는 심각한 자연재해와 관련된 비용, 탄소 상쇄 또는 재생에너지 인증서 관련 정보가 그것이다.

SAP의 최고 지속가능성책임자인 소피아 맨델존은 “SAP는 수년 동안 통합보고(재무-ESG 통합)를 진행해왔다”며 “기업의 구매와 생산 등 모든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가져와 재무 데이터 옆에 뒤편에 뒀다”고 밝혔다.

셋째, 보고기준의 엄격화다. 즉, 제3자 검증(assurance)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상장 대기업은 2029년까지 ‘제한된 검증(Limited Assurance)’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해야 하며, 4년 후에는 합리적 검증(Reasonable Assurance) 수준의 제3자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결국 ESG 공시가 재무회계 감사와 비슷해진다는 의미다. 합리적 검증이란 연말 재무제표 감사 의견과 유사하게 관련 정보가 기준과 일치하며, 잘못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했다는 것으로, 제한된 검증보다 훨씬 까다롭다. 그린비즈는 “이러한 요구사항 때문에 더 많은 기업이 ESG 컨트롤러(controller, 감사관)를 고용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6. 이달의 핫이슈

넷제로 약속의 연기와 중단이 미치는 영향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뜨거운 감자는 ‘넷제로’에 대한 기업들의 이행 중간평가다. 2020~2021년 사이 전 세계 대기업은 대부분 넷제로를 선언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 기업들의 이행경로는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각) 영국의 메이저 정유사인 셸은 넷제로 목표를 약화시키는 [수정 전략을 발표](#)했다. 이전 목표는 2030년까지 스코프3 배출량을 20% 감축하겠다는 목표였으나, 이를 15~20%로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또 ‘에너지 전환의 변화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2035년까지 2016년 대비 45% 감축하겠다는 탄소집약도 목표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2022년, BP 역시 2030년까지 중간 목표를 기존의 ‘35% 이상 감축’에서 ‘20~30% 감축’으로 수정한 바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최대 투자자그룹인 클라이밋액션 100+(CA100+)는 엑손모빌, 셸, 셰브론, 토탈에너지스, BP 등 10개의 석유 및 천연가스 중점기업의 [넷제로 중간 평가를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CA 100+는 “여러 기업이 넷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탄소포집이나 업스트림 생산과 같은 중요한 요소에 대한 데이터 공개가 없기 때문에, 넷제로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투자자가 이해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19%만 넷제로 표준의 섹터별 지표를 충족했다고 한다. 10곳 중 9곳은 스코프1,2 운영상 배출에 대한 넷제로 목표를 설정했으나, 단 2곳만이 메탄 배출 전략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기업의 경우 재생가능 전력보다 연료에 중점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Climate Action 100+ For more details on the methodology and how to use this worksheet please see the documentation in [How the NZS works](#)

Company name	Region	Disclosure	Alignment	Climate Solutions
BP	Europe	71%	28%	40%
Chevron	North America	31%	0%	15%
ConocoPhillips	North America	32%	0%	0%
Eni	Europe	66%	38%	52%
Exxon	North America	34%	0%	5%
Oxy	North America	39%	25%	0%
Repsol	Europe	58%	0%	52%
Shell	Europe	58%	3%	22%
Suncor	North America	20%	0%	0%
TotalEnergies	Europe	71%	16%	85%

클라이밋 액션 100+가 석유 및 천연가스 기업에 대한 넷제로 표준(NZS O&G)을 사용해 10개의 석유 및 천연가스 중점 기업을 평가했다./ CA100+

6. 이달의 핫이슈

넷제로 중간 점검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이니셔티브\)](#)는 971개 기업을 대상으로 넷제로 목표를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기업의 넷제로 목표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시보드에서 239개 기업의 상태를 ‘약속 삭제(commitment removed)’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P&G, 유니레버, 월마트, 디아지오, 맥스&스펜서 등 유명 기업도 이 명단에 포함됐다. SBTi는 넷제로 선언을 하고 해당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이후, 24개월 동안 각 기업의 넷제로 목표를 과학기반으로 검증받는 절차를 거친다.

이유는 무엇일까. SBTi가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54%는 미래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53%), 스코프3(Scope3) 배출량 감축을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응답했다. 이밖에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 부족(35%), 넷제로 표준의 부재(27%),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섹터별 경로의 부재(23%), 목표를 설정하기에 부족한 배출량 데이터(22.5%), 넷제로 목표의 추상적 성격(22%), 규제 시스템과의 잠재적 충돌(18%) 등을 꼽았다.

이미 [인텔](#)은 지난 1월 [SBTi](#)에서는 인공지능(AI)을 통한 과거의 온실가스 감축이나 회피된 배출량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엔비디아 또한 SBTi 표준을 따르지 않으며, 아마존은 지난해 여름 SBTi 기반 넷제로 이행 약속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SBTi는 “기업 넷제로 표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스코프3 목표 설정 및 측정과 관련된 개정사항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니레버의 경우, “SBTi의 현재 방법론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사용하는 넷제로의 정의와 다르기 때문에, 2021년 설정된 첫번째 (단기) 넷제로 목표를 검증할 수 없었다”며 “업데이트된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SBTi에 제출했으며,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니레버는 성분(소재), 포장, 물류, 제품 폐기 및 기타 스코프3 활동에서 42%의 절대 감축 목표가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Editor's Comment

블랙록 래리핑크의 연례서한에서도 드러나듯, 결국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이슈는 향후 수십 년의 경제 시스템을 바꿀 메가 트렌드다. 전환이 가져올 산업적인 기회에 포커스를 두면서도, 전환 과정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기후 공시나 ESG 공시는 이러한 기업의 변화를 데이터와 숫자를 통해 외부의 투자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첫걸음이다. 공시 준비를 서두르며, 해당 데이터가 우리 기업의 재무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최고 경영진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